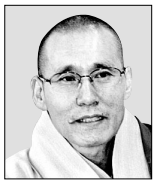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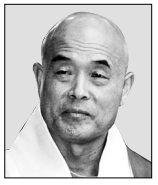
일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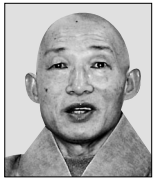
부처님오신날 맞이 8일기도 서울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은 5월 18~25일 부처님 오신날 맞이 8일기도를 개최한다. (02)768-8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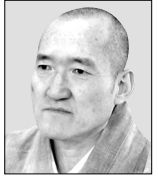
108유아수계법회 서울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은 5월 9일 봉은사 법당에서 북동대아부터 7세 아동을 대상으로 108유아수계법회를 연다. (02)3218-4800-6



불국사 어린이 글짓기·그리기 대회 경주 불국사 주지 스님은 5월 10일 불국사 법당 앞 광장에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글짓기·그리기 대회를 진행한다. (054)746-1472



황수경교수와 함께 템플스테이 김천 지지사 주지 흥선 스님은 5월 8~10일 황수경교수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 '내 마음의 작은 섬표'를 마련한다. (054)429-1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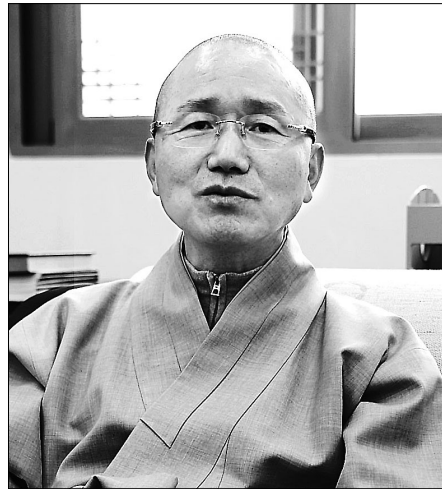
'통일시대의 준비' 토론회 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획단 상임단장 범용 스님은 4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통일시대의 준비' 토론회를 개최한다.



공불련 성지순례 및 합동수계법회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김상인 회장은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순천 송광사에서 제24회 성지순례 및 합동수계법회를 개최한다.

“불교 초월한 선문화체험 공간운영”

전통명상수련센터 완공한 분당 대광사 주지 월도 스님



4월 21일 대광사 선명상센터 낙성식 총 5개층...명상대학 3월에 개원 상담심리학, 요가 등 프로그램 다채



이번에 새로 개원한 명상수련센터 내부

중·고급 각 단계별로 1년씩 총 3년 과정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현재는 김열권 교수 등 관련 전문가 3명이 140여명의 수강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스님은 “선명상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병을 앓는 이들이 많은 요즘은 심리상담의 역할도 그 어느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리상담도 가르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대광사 수련센터는 개원전부터 지역민들에게 관심이 높다. 월도 스님에 따르면 홍보를 많이 한 것도 아닌데 명상대학 정원 모집에 경쟁률이 2~3 대 1을 육박할 정도로 몰렸다고 한다. 명상대학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1주일에 한 번 진행하는 데 커리큘럼으로는 명상 지도자과정, 명상 이론 및 실기, 심리학, 상담심리 등을 강의한다. 또한 월도 스님은 “선명상센터 완공된 효율적 활용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학술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서 현대인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한 효율적인 체험공간이 되려면 어떻게 운영할지를 모색한 것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월도 스님은 “선 체험 뿐만 아니라 요가 및 명상체조는 물론 다도프로그램 등 문화적인 체험도 할 수 있게 장트를 점점 넓혀갈 생각입니다.”라고 굳은 의지를 피력했다. 김주일 기자

열린선원, 사리 친견 특별 법회



열린선원(원장: 범현스님)은 4월 12일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정진 설법회 및 타다유기(일본인 교사기수) 초청공연을 열었다. 이번 법회는 3년 전인 2012년 5월 5일 미얀마 민잔사 이운한 진신사리 9과의 친견법회와 특별초청공연을 겸해서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삼천사 회주 성은 스님은 “진신 사리를 친견한 인연공덕으로 삼매정진하며 열심히 전법하라”고 당부했다. 열린선원 진신사리는 개원 기념법회일인 6월 6일까지 일반인에게 개방해 친견토록 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함께 밥 먹는 것도 교육입니다”

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한 성금 스님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국방의 의무와 교육의 의무가 명시돼 있습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하러 가면서 밥값 들고가는 장병을 보셨습니까? 교육도 의무입니다. 교육의 의무에도 급식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진주 지역 초등학교에 무상급식 지원을 하겠다고 나서 화제가 된 (사)마하어린이재단 이사장 성금 스님(진주 성전암 주지)은 지원 계기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머리를 풀었다. 교육은 의무이고 그 안에는 급식비용도 함께 포함돼 있다는 말이다. 실제 스님이 이사

장으로 있는 마하어린이재단은 4월 6일 지역의 이반성초등학교와 급식비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으로 인하여 이뤄진 것으로 이반성초등학교 학생 및 병설유치원생 중 무상 지원되지 않는 30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는다. 급식 지원은 오는 2016년 2월 29일까지 이뤄진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1300여 만원이다.

성금 스님은 학생들이 차별 받지 않는 의무급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무 급식이 사라지고 경제적 차이가 드러나게 되면 아이들은 적지 않는 상처를 입는다는 것이다.

“의무 교육 안에서는 누구나 차별없이 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은 밥을 먹는 것은 중요한 교육이기도 합니다. 무상급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계속 급식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사할 재정이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주위에서도 용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성금 스님은 “의무 교육 안에서는 누구나 차별없이 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은 밥을 먹는 것은 중요한 교육이기도 합니다. 무상급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계속 급식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사할 재정이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주위에서도 용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의무 교육 안에서는 누구나 차별없이 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은 밥을 먹는 것은 중요한 교육이기도 합니다. 무상급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계속 급식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사할 재정이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주위에서도 용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의무 교육 안에서는 누구나 차별없이 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은 밥을 먹는 것은 중요한 교육이기도 합니다. 무상급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계속 급식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사할 재정이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주위에서도 용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덕대, 해병 1사단과 협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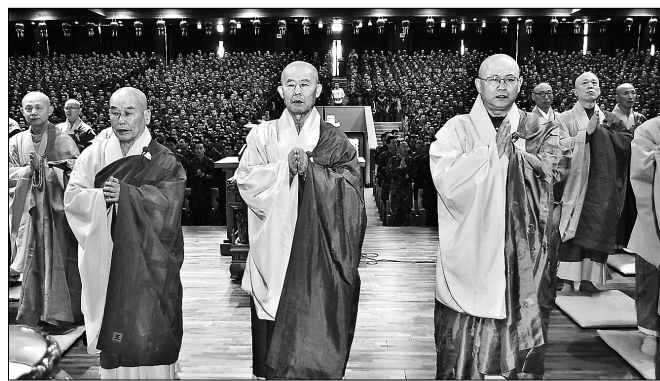


위덕대(총장 홍육헌)는 4월 10일 해병대 제1사단과 학·군간 교류와 협력을 내용으로 한 업무협약을 해병대 제1사단 본부 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양 기관의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체결된 주요 협약 사항으로는 학술연구 분야의 교류와 지원, 군부대 교육 진흥을 위한 계약학과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협약식서 해병대 황우현 제1사단장은 “지역사회발전과 군 교육진흥을 위해 지역에 위치한 위덕대가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군 인력의 계속 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고등교육 차원에서의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장병들의 계속 교육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위덕대 홍육헌 총장은 “지역사회 평생교육의 요구에 부응하고 특히, 군 인력의 교육 육구를 충실시키기 위해 계약학과 등 다각도의 교육시스템을 마련, 실질적으로 평생교육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김주일 기자

대한불교승가종, 육군훈련소 위문

4월 11일 호국연무사에서 5천명 수계



(사)대한불교승가종 중정 월인 스님(대한불교종정협의회 이사장)은 4월 11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주지 지은 법사)에서 5천여 명 훈련병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열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월인 스님을 비롯해 대한불교조계종 청봉 스님, 승가종 종도 스님 50여 명이 참석했다.

월인 스님은 법문에서 “호국연무사 큰법당에서 법문을 한 것이 오늘로 7번째지만 매년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걸림이 없도록 오계를 잘 지켜달라는 것”이라며 “계를 수지하고 군복무에 임해줄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불교 조계종 청봉 스님은 나용화상 계승으로 법문했다.

월인 스님은 훈련병 대표로 나선 20여 훈련병에게 연비를 했으며 승가종 스님 50여 명이 일일이 5천여 훈련병들에게 연비 후 계침을 수여했다. 노덕현 기자

대한불교조동종, 우물파기 첫 삽

4월 3일, 조동종 불자 성금으로 자비 실천행



대한불교조동종(총무원장 덕우)은 4월 3일 캄보디아 씨엠틀림 북쪽 마을을 찾아 자비 우물파기의 첫 행사를 진행했다.

4월 3일 오전 11시 조동종 부총정 법공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덕우 스님과 종단 임원 및 불자 1백여명은 캄보디아 씨엠틀림에서 차로 30분 떨어진 북쪽 마을(이장 레츨)을 방문하여 한국에서 가져간 위문품을 전달하고 한국 조동종 불자들의 성금으로 조성된 자비우물의 첫 물길을 열었다.

이날 조동종 자비우물파기 현장에서 조동종 총무원장 덕우 스님은 “우리가 오늘 북쪽 마을에서 자비우물을 판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두 개, 세 개 나아가 이 지역에 학교를 건립하는 좋은 인연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자비우물을 통해 북쪽 마을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우리 종단 사찰과 불자들이 지속적인 관심으로 더 큰 자비행을 실천하는 계기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청운 경남남부지부장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氣 에너지치유명상**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명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설법전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 ~ 8:30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악문화진흥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 처명)**

**제1기 불교의식 범음 범패 학인 모집**

각단 불공의식 단기속성 3개월 과정

- 교육과정 -

기본의식(3개월당기)  
도량식, 종송, 향수하례, 삼보통청, 중단퇴공, 각단불교의식, 관음청, 지장청, 신중청, 시달림, 방생의식, 상용영반, 구병의식

중급과정(범음, 범패)  
상주권공, 대령관곡, 신중39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화청

작법 : 천수바라, 도량계, 사다라니작법

사물 : 북, 태징, 목탁, 요령

강주스님 : 일관

보경사 불교대학에서는 초심자라도 불교정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 모집대상 : 스님, 출가예정자, 재가불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본 교육원에서 교부) 1부 반명함 사진 ..... 3매
- 개강일시 : 2015년 5월 7일(목)
- 수 업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5시
-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23번지
- 신청문의 : (054) 262-1117(보경사 중무소)

\* 숙식 제공 가능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보경사 선원장 철산 합장**